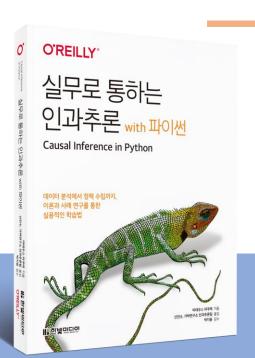




#### 『실무로 통하는 인과추론 with 파이썬』 특강



게임 업데이트 효과에 따른 이질적 처치효과 추정

### 발표자 소개



박이삭 <u>Linkedin</u>

게임 회사 데이터 분석 (2018~)

- 유저 LTV 추정
- LTV 극대화

통계학 전공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게 목표

취미: 우쿨렐레

※ 모든 그림은 교재 Github 자료와 직접 코드를 작성하여 만들었습니다. (+ChatGPT)



#### Contents



0. 이질적 처치효과 복습

1. CATE 모델 평가

누적 효과 곡선

누적 이득 곡선

목표 변환

2. 업데이트 효과에 따른 이질적 처치 효과 추정 사례





이상적인 상황과 달리 현실 세계에서는 처치를 가하면 다양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상적인 상황과 달리 현실 세계에서는 처치를 가하면 다양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ATE = E[Y_1 - Y_0]$$

$$CATE = E[Y_1 - Y_0|X]$$

Conditional ATE

$$E[Y_1 - Y_0| 남성]$$
  $E[Y_1 - Y_0| 나이]$ 

$$E[Y_1 - Y_0|$$
여성]  $E[Y_1 - Y_0|$ 신장]





회귀분석으로 처치 효과 구하기

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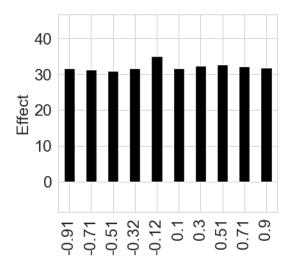
$$y = \beta_0 + \beta_1 T + \beta_2 X +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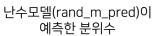
$$y = \beta_0 + \beta_1 T + \beta_2 X + \beta_3 T X +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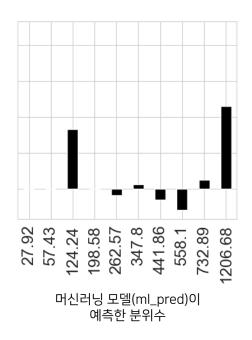
$$\frac{\delta y}{\delta T} = \beta_1$$

$$\frac{\delta y}{\delta T} = \beta_1 + \beta_3 X$$









23.93 26.85 28.95 28.95 30.81 37.68 36.75 47.36 CATE 모델(cate\_pred)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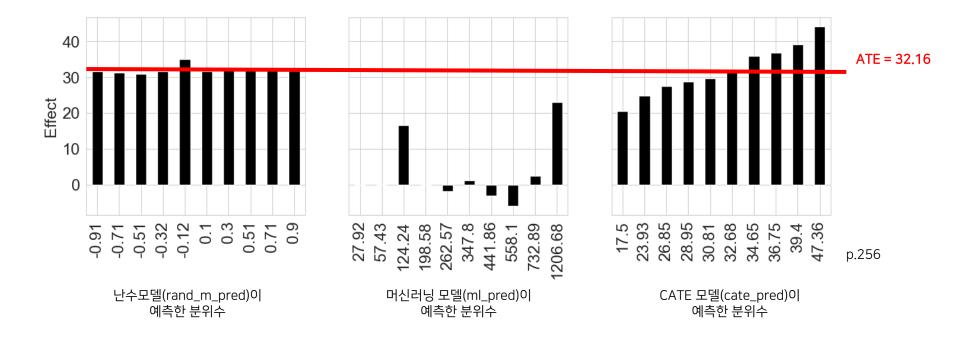
CATE 모델(cate\_pred)<sup>(</sup> 예측한 분위수

#### 목적: X(공변량)에 대한 T(처치)의 매출 민감도를 측정하길 원함 p.246

```
import statsmodels.formula.api as smf

X = ["C(month)", "C(weekday)", "is_holiday", "competitors_price"]
regr_cate = smf.ols(f"sales ~ discounts*({'+'.join(X)})",
data=data).fit()
Executed at 2024.07.14 11:10:29 in 422ms
```





```
# 간단하게!
X = ["C(month)"]
regr_model = smf.ols(f"sales ~ discounts*({'+'.join(X)})",data=train).fit()
```



```
1 # ZFEF6F7M!
2 X = ["C(month)"]
3 regr_model = smf.ols(f"sales ~ discounts*({'+'.join(X)})",data=train).fit()
```

$$y = \beta_0 + \beta_1 T + \beta_2 X + \beta_3 T X + e$$

$$\frac{\delta y}{\delta T} = \beta_1 + \beta_3 X$$

	coef	std err	t	P> t	[0.025	0.975]
Intercept	49.9739	7.728	6.467	0.000	34.824	65.124
C(month)[T.2]	-9.1498	11.160	-0.820	0.412	-31.028	12.728
		-	••			
discounts	38.3301	0.555	69.025	0.000	37.241	39.419
discounts:C(month)[T.2]	-6.1997	0.778	-7.965	0.000	-7.726	-4.674
discounts:C(month)[T.3]	-7.0223	0.786	-8.931	0.000	-8.564	-5.481
discounts:C(month)[T.4]	-8.7973	0.780	-11.277	0.000	-10.327	-7.268
discounts:C(month)[T.5]	-11.3028	0.768	-14.726	0.000	-12.808	-9.798
discounts:C(month)[T.6]	-11.7491	0.798	-14.728	0.000	-13.313	-10.185
discounts:C(month)[T.7]	-6.5614	0.759	-8.647	0.000	-8.049	-5.074
discounts:C(month)[T.8]	-11.4423	0.754	-15.184	0.000	-12.920	-9.965
discounts:C(month)[T.9]	-7.3423	0.776	-9.458	0.000	-8.864	-5.820
discounts:C(month)[T.10]	-3.6777	0.759	-4.843	0.000	-5.166	-2.189
discounts:C(month)[T.11]	-2.6320	0.801	-3.285	0.001	-4.203	-1.061
discounts:C(month)[T.12]	-2.0715	0.776	-2.668	0.008	-3.594	-0.549



```
1 # ZFEF6FZM!
2 X = ["C(month)"]
3 regr_model = smf.ols(f"sales ~ discounts*({'+'.join(X)})",data=train).fi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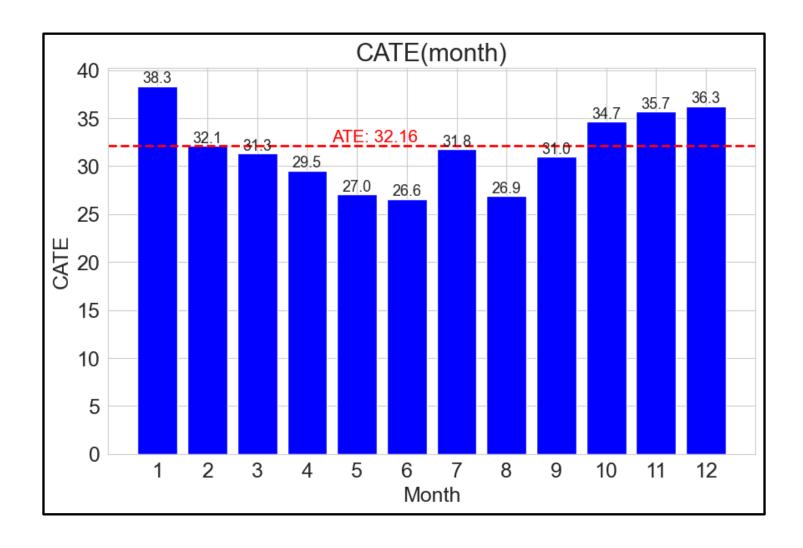
$$y = \beta_0 + \beta_1 T + \beta_2 X + \beta_3 T X + e$$

$$\frac{\delta y}{\delta T} = \beta_1 + \beta_3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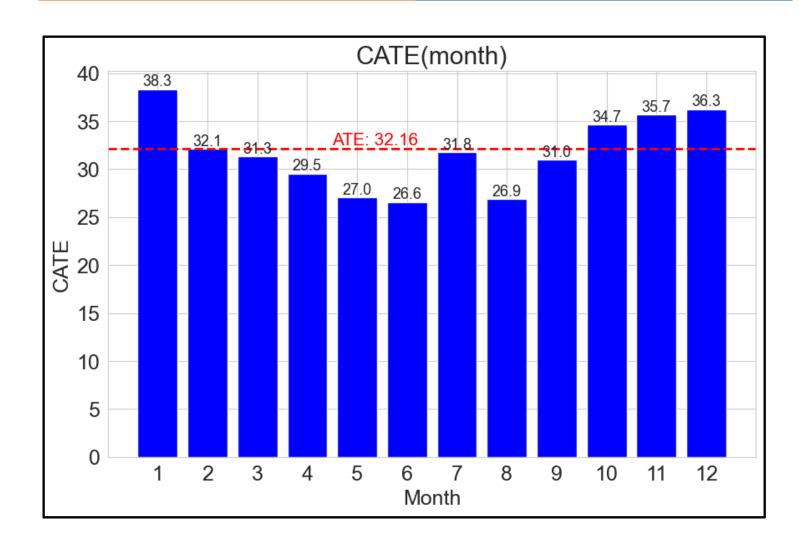
discounts	38.3301	
discounts:C(month)[T.2]	-6.1997	
discounts:C(month)[T.3]	-7.0223	
discounts:C(month)[T.4]	-8.7973	
discounts:C(month)[T.5]	-11.3028	
discounts:C(month)[T.6]	-11.7491	
discounts:C(month)[T.7]	-6.5614	
discounts:C(month)[T.8]	-11.4423	
discounts:C(month)[T.9]	-7.3423	
discounts:C(month)[T.10]	-3.6777	
discounts:C(month)[T.11]	-2.6320	
discounts:C(month)[T.12]	-2.0715	

$\beta_1$	$oldsymbol{eta}_3$	X(=Month)	$rac{\delta y}{\delta T}$
38.3301	0	1월	38.3301
38.3301	-6.1997	2월	32.1304
38.3301	-7.0223	3월	31.3078
•••			
38.3301	-2.0705	12월	35.2596









각 월별 ATE값 구해본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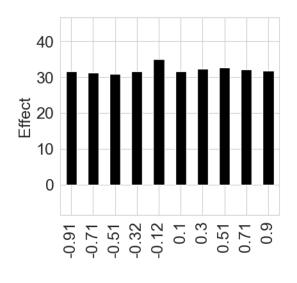
※ CATE 값은 참 값과 다를 수 있으니, 값 자체보다는 순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1월 ATE: 34.2752월 ATE: 31.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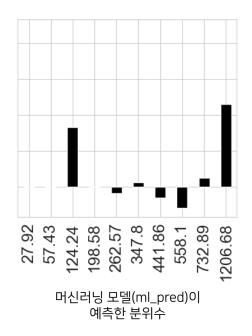
• ...

데이터를 이용해 구했더니 CATE값과는 다른 값이 나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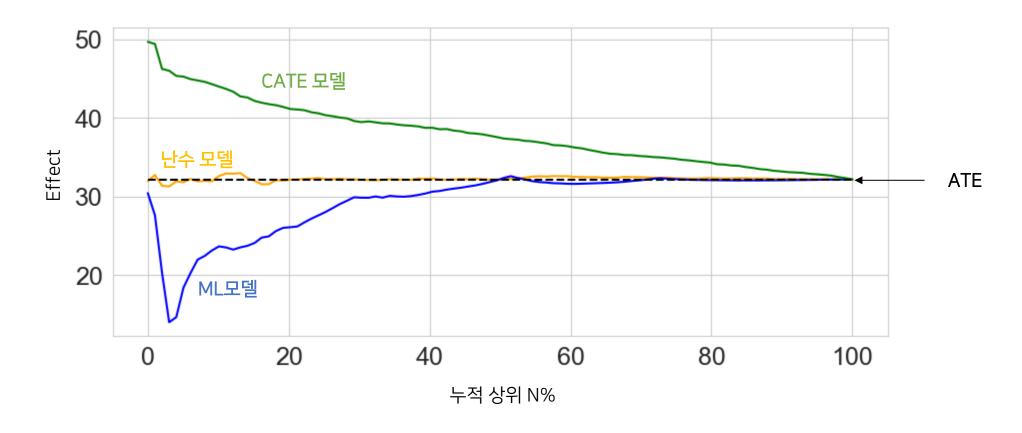
난수모델(rand\_m\_pred)이 예측한 분위수



CATE 모델(cate\_pred)이 예측한 분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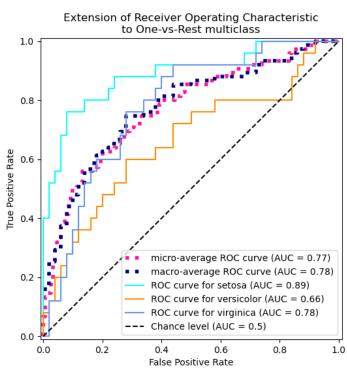
- CATE를 구한다는 건 X조건에 따른 순서를 구하는 것
- 모델이 순서를 잘 반영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분위수별 CATE 예측값이 점점 커지거나 작아지면 잘 예측한 것
- 1% 단위로 CATE를 구해보고 그 형태를 확인





- X축이 1일 때는 누적 상위 1%, X축이 2일 때는 누적 상위 2%의 효과를 확인하는 그림입니다.
- CATE 모델은 매우 높게 시작하여 점차 ATE로 수렴합니다.
- 난수 모델과 ML 모델은 ATE 주변에서 진동하고 빠르게 수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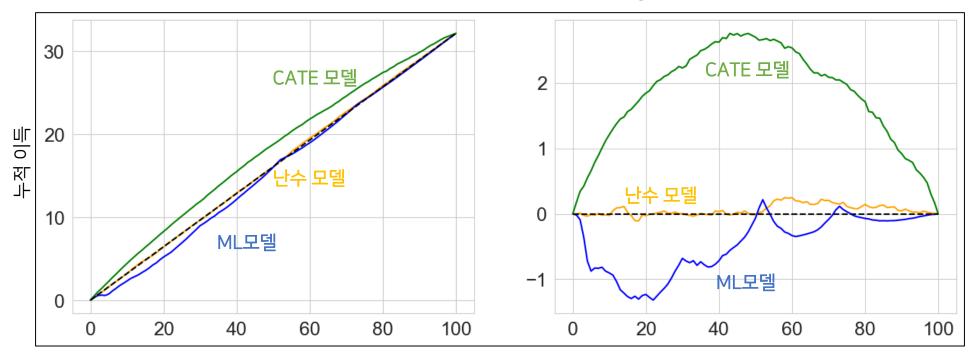
Sklearn ROC-AUC 예시 Link

- 누적 효과곡선은 CATE 예측 성능을 확인하는 효과적인 방법
- 매번 그림을 그려 확인하는 대신, 곡선과 ATE 사이의 면적을 계산해 단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ROC 커브의 AUC 값처럼)
- 단점: X가 1일 때 가장 큰 값을 차지하지만, 누적 상위 1% 표본 크기가 작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누적 이득 곡선을 사용합니다.



#### 누적 이득 곡선

#### 정규화된 누적 이득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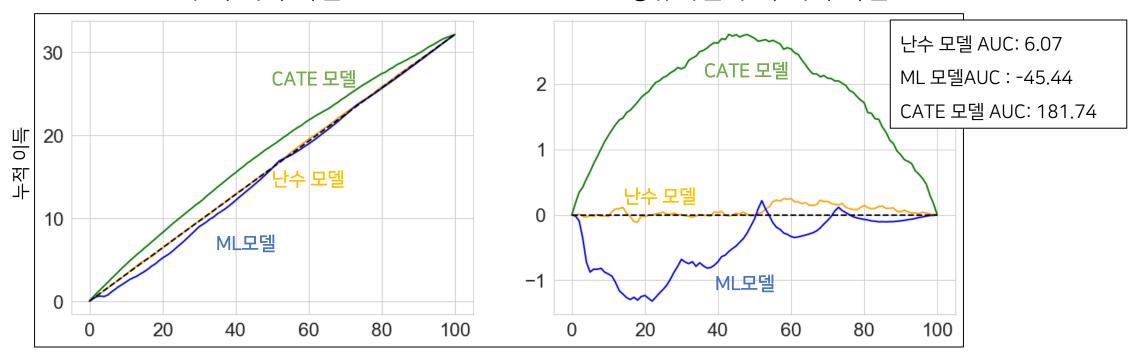


- 누적 효과 곡선의 문제점: 상위 % 표본이 부족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단점 존재
- 해결책: 효과를 구할 때마다 누적 표본( $\frac{N_{cum}}{N}$ )을 곱해 정규화 (정규화로 인해 상위 % 효과가 축소됨)
- 이를 "누적 이득 곡선"이라 부르며, 왼쪽 그림으로 표현.
- 오른쪽 그림은 ATE로 정규화한 그림.
- AUC 값으로 모델의 CATE 순서 예측 성능 확인 가능.



#### 누적 이득 곡선

#### 정규화된 누적 이득 곡선



- 누적 효과 곡선의 문제점: 상위 % 표본이 부족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단점 존재
- 해결책: 효과를 구할 때마다 누적 표본( $\frac{N_{cum}}{N}$ )을 곱해 정규화 (정규화로 인해 상위 % 효과가 축소됨)
- 이를 "누적 이득 곡선"이라 부르며, 왼쪽 그림으로 표현.
- 오른쪽 그림은 ATE로 정규화한 그림.
- AUC 값으로 모델의 CATE 순서 예측 성능 확인 가능.

#### CATE 모델 평가 –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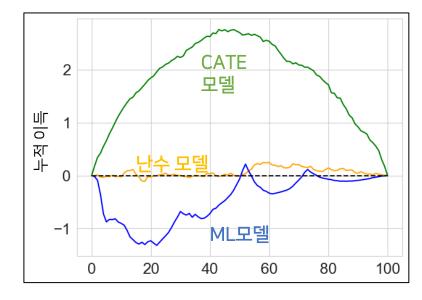
• CATE? X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평균 처치 효과이며, Y를 T로 미분해서 얻음

$$y = \beta_0 + \beta_1 T + \beta_2 X + \beta_3 T X + e$$

$$\frac{\delta y}{\delta T} = \beta_1 + \beta_3 X$$

- 단, CATE는 값 자체가 아닌 순서를 사용해야 함 (회귀 계수 추정값이기 때문)
- 모델의 순서가 잘 정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누적 효과 곡선", "누적 이득 곡선"
- 이를 이용해 AUC(Area Under The Curve)를 구하면 모델을 숫자 하나로 비교 가능
- ※ 정확한 CATE 값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누적 이득 곡선"만 이용하는 것은 지양 (하지만 아쉽게도 대안은 없습니다)
- ※ 모든 인과추론 과정이 그렇지만 교란이 없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핵심

정규화된 누적 이득 곡선



#### CATE 모델 평가 – 목표변환



$$E[Y_i^*] = \tau_i$$

$$Y_i^* = rac{(Y_i - \hat{\mu}_y(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2} = rac{Y_i - \hat{\mu}_y(X_i)}{T_i - \hat{\mu}_t(X_i)} 
equal Y_i^* = rac{(Y_i - \hat{\mu}_y(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2} 
equal Y_i^* = rac{(Y_i - \hat{\mu}_y(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2} 
equal Y_i^* = rac{(Y_i - \hat{\mu}_y(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2} 
equal Y_i^* = rac{(Y_i - \hat{\mu}_y(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2} 
equal Y_i^* = rac{(Y_i - \hat{\mu}_y(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2} 
equal Y_i^* = rac{(Y_i - \hat{\mu}_y(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2} 
equal Y_i^* = rac{(Y_i - \hat{\mu}_y(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2} 
equal Y_i^* = rac{(Y_i - \hat{\mu}_y(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2} 
equal Y_i^* = rac{(Y_i - \hat{\mu}_y(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2} 
equal Y_i^* = rac{(Y_i - \hat{\mu}_y(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2} 
equal Y_i^* = rac{(Y_i - \hat{\mu}_y(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2} 
equal Y_i^* = rac{(Y_i - \hat{\mu}_y(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2} 
equal Y_i^* = rac{(Y_i - \hat{\mu}_y(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2} 
equal Y_i^* = rac{(Y_i - \hat{\mu}_y(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2} 
equal Y_i^* = rac{(Y_i - \hat{\mu}_y(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2} 
equal Y_i^* = rac{(Y_i - \hat{\mu}_y(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2} 
equal Y_i^* = rac{(Y_i - \hat{\mu}_y(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2} 
equal Y_i^* = rac{(Y_i - \hat{\mu}_y(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2} 
equal Y_i^* = rac{(Y_i - \hat{\mu}_t(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2} 
equal Y_i^* = rac{(Y_i - \hat{\mu}_t(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2} 
equal Y_i^* = rac{(Y_i - \hat{\mu}_t(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 
equal Y_i^* = rac{(Y_i - \hat{\mu}_t(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 
equal Y_i^* = rac{(Y_i - \hat{\mu}_t(X_i))(T_i - \hat{\mu}_t(X_i)}{(T_i - \hat{\mu}_t(X_i))} 
equal Y_i^* = rac{($$

즉,  $\tau_i$ 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이라면 다음과 같은 MSE 공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MSE(CATE(X_i), Y_i^*)$$

만약, 앞서 구한 3가지 모델의 CATE 예측값이  $au_i$ 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이라면 MSE는 0에 가까운 값을 가질 것 입니다.

 $Y_i^*$ 는 정확하게 구할수록 분모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Weighted MSE 값을 이용해 구합니다.

$$= \frac{\sum_{i=1}^{n} w_i (CATE(X_i) - Y_i^*)}{\sum_{i=1}^{n} w_i} \qquad \qquad \text{t. } w_i = (T_i - \hat{\mu}_t(X_i)^2)$$

#### CATE 모델 평가 – 목표변환



• 난수 모델의 MSE : 1115.80

• ML 모델의 MSE : 576256.74

• CATE 모델의 MSE : 42.90



#### 대부분 게임사는 복귀유저 캠페인을 진행 중

- 신규 유저대비 획득 비용이 낮은 장점 (=낮은 CAC)
- 신유 유저 대비 로그인 유지 비율이 높음 (=높은 Retention)







# 사례

이번 업데이트로, 7일만에 복귀 시, 아이템을 주는 업데이트를 진행 즉, 마지막 접속일로부터 7일 이상 지나면 아이템 지급 대상 아이템 지급 효과는 있었지만... **문제가 발생!** 



유저 A (170시간)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7월 6일	7월 7일
			유저 B (	167시간)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7월 6일	7월 7일

- 미 접속 기간이 7일 이상인 유저는 복귀 보상을 획득
- A와 B유저는 6월 30일 마지막 접속 후, 7월 7일 복귀
- 하지만 A만 복귀 보상을 받았는데, 이유는 마지막 접속으로 부터 7일(=168시간)이 지났기 때문

이거... 실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인데??!

T: 복귀 보상 지급

Y: Ret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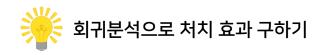
diff_hour	Reward(T)	7일 뒤, Retention (Y)
158	0	0
176	1	1
163	0	0
164	0	0
168	1	1
172	1	0
168	1	0
167	0	0
167	0	0
179	1	0

<데이터 셋트 예시>

- 복귀 7일차 유저 중, 168시간 이후 복귀 유저인 경우 Reward(보상) 획득
- 168시간 미만의 경우 Reward를 획득하지 못함
- 다시 7일 뒤, 해당 유저들이 접속여부를 측정
- 로지스틱 회귀분석 이용







#### ATE

$$y = \frac{1}{1 + e^{-(\beta_0 + \beta_1 T)}}$$

$$ATE = \frac{1}{N} \sum_{i=1}^{N} P(Y|T=1) - P(Y|T=0)$$

#### **CATE**

$$y = \frac{1}{1 + e^{-(\beta_0 + \beta_1 T + \beta_2 X + \beta_3 TX)}}$$

$$CATE = \frac{1}{N} \sum_{i=1}^{N} P(Y|T=1, X) - P(Y|T=0, X)$$



diff_hour	Reward(T)	7일 뒤, Retention (Y)
158	0	0
176	1	1
163	0	0
164	0	0
168	1	1
172	1	0
168	1	0
167	0	0
167	0	0
179	1	0

<데이터 셋트 예시>

- 복귀 7일차 유저 중, 168시간 이후 복귀 유저인 경우 Reward(보상) 획득
- 168시간 미만의 경우 Reward를 획득하지 못함
- 다시 7일 뒤, 해당 유저들이 접속여부를 측정

#### <집계 결과>

	복귀 보상		
7일뒤 접속	미획득 획득		
X	10,193	12,777	
0	625	1,006	

오즈	6.13%	7.87%	]
오즈비		1.2841	

=1006/12777 =7.87/6.13

T = df['reward']

Y = df['retention']

# 로지스틱 회귀모델 생성 및 학습

data = pd.DataFrame( data: {'Y': Y, 'T': T}, index = X.index)

# 로지스틱 회귀 모델 피팅

model = smf.logit( formula: 'Y ~ T', data).fit()

# 결과 요약 출력

print(model.summary())

	coef	std err	z	P> z	[0.025	0.975]
Intercept						
Т	0.2500	0.053	4.750	0.000	0.147	0.3

np.exp(0.25): 1.2840254166877414



diff_hour	Reward(T)	7일 뒤, Retention (Y)
158	0	0
176	1	1
163	0	0
164	0	0
168	1	1
172	1	0
168	1	0
167	0	0
167	0	0
179	1	0

<데이터 셋트 예시>

```
# ATE 라인
ATE = (
    df.query("reward == 1")["retention"].mean()
    - df.query("reward == 0")["retention"].mean()
)
print(f"ATE(%): {ATE*100:.2f}%")
```

ATE(%): 1.52%

$$ATE = \frac{1}{N} \sum_{i=1}^{N} P(Y|T=1) - P(Y|T=0)$$

- 복귀 7일차 유저 중, 168시간 이후 복귀 유저인 경우 Reward(보상) 획득
- 168시간 미만의 경우 Reward를 획득하지 못함
- 다시 7일 뒤, 해당 유저들이 접속여부를 측정



diff_hour	Reward(T)	7일 뒤, Retention (Y)	누적 결제금액(X)
158	0	0	17,000
176	1	1	26,000
163	0	0	8,000
164	0	0	0
168	1	1	0
172	1	0	0
168	1	0	0
167	0	0	0
167	0	0	180,000
179	1	0	86,000

<데이터 셋트 예시>

```
X = df['cum_purchase_amt']
T = df['reward']
Y = df['retention']
# 로지스틱 회귀모텔 생성 및 학습
data = pd.DataFrame( data: {'Y': Y, 'T': T, 'X': X}, index = X.index)
# 로지스틱 회귀 모델 피팅
model = smf.logit( formula: 'Y ~ T + X + T:X', data).fit()
# 결과 요약 출력
print(model.summary())
```

========			========			
	coef	std err	Z	P> z	[0.025	0.975]
Intercept	-2.7960	0.041	-67.501	0.000	-2.877	-2.715
Т	0.2451	0.053	4.625	0.000	0.141	0.349
X	5.831e-08	4.84e-08	1.204	0.228	-3.66e-08	1.53e-07
T:X	5.375e-08	6.67e-08	0.806	0.420	-7.7e-08	1.84e-07







#### ATE

$$y = \frac{1}{1 + e^{-(\beta_0 + \beta_1 T)}}$$

$$ATE = \frac{1}{N} \sum_{i=1}^{N} P(Y|T=1) - P(Y|T=0)$$

#### CATE

$$y = \frac{1}{1 + e^{-(\beta_0 + \beta_1 T + \beta_2 X + \beta_3 TX)}}$$

$$CATE = \frac{1}{N} \sum_{i=1}^{N} P(Y|T=1,X) - P(Y|T=0,X)$$



```
# 특정 값 x에 대해 CATE 계산

1 usage

def calculate_cate(x):
        coef = model.params
        p1 = 1 / (1 + np.exp(-(coef['Intercept'] + coef['T'] + coef['X']*x + coef['T:X']*x)))
        p0 = 1 / (1 + np.exp(-(coef['Intercept'] + coef['X']*x)))
        return p1 - p0

# 예시: X = 1에 대한 CATE

result = pd.DataFrame()

for x_value in range(0, 1000000+100000, 100000):
        cate_value = calculate_cate(x_value)
        print(f"CATE at X={x_value}: {cate_value}")
        df =pd.DataFrame( data: {'sales':x_value, 'cate':cate_value}, index =[0])
        result = pd.concat([result, df])
```

$$CATE = \frac{1}{N} \sum_{i=1}^{N} P(Y|T=1, X) - P(Y|T=0, X)$$

X	CATE
0	1.483%
100,000	1.527%
200,000	1.571%
300,000	1.616%
400,000	1.662%
500,000	1.708%
600,000	1.755%
700,000	1.802%
800,000	1.850%
900,000	1.898%
1,000,000	1.948%



구분	Effect					
ATE	1.52%					
CATE(x = 누적 결제 금액)	X가 커질수록 증가					

- ATE, CATE 값만 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님
- 보상 제공이 Retention을 1.52% 상승시키고, 결제금액이 많을수록 효과가 큼
- 분석 이유: 보상을 못 받은 유저와 받은 유저 간 차이 확인
- 168시간 대신 7일(day)로 구분하자고 유관 부서를 설득하는 자료로 사용 가능



# 감사합니다

 $\vee$ 



```
def cumulative_effect_curve(dataset: pd.DataFrame, prediction: str, y: str, t: str,
                              ascending: bool = False, steps: int = 100) -> np.ndarray:
2 🖯
       size = len(dataset) # 데이터 셋 크기 설정
3
       ordered_df = (dataset # prediction 값을 기준으로 순서를 재정렬
                     .sort_values(prediction, ascending=ascending)
                     .reset_index(drop=True))
6
       steps = np.linspace(size/steps, size, steps).round(0) # 균등하게 분포된 steps 개수만큼의 숫자를 생성. round는 정수형으로 바꿔주기 위해 추가
8
9
       return np.array([effect(ordered_df.query(f"index<={row}"), t=t, y=y) # effect 함수(회귀 계수 추정)를 이용해 상위 row%씩 효과 계산
10 □
                       for row in steps])
11 🗇
12
   cumulative_effect_curve(test_pred, "cate_pred", "sales", "discounts")
    Executed at 2024.07.20 09:28:00 in 219ms
```

		< 1-10 v	, > >I	100 rows ×	1 columns						
<b>‡</b>	123 0	<b>‡</b>									
0	4	49.651163									
1	4	49.377125									
2	4	46.203603									
3	4	45.977068									
4	4	45.317118									